

건축사

해외건축동향
overseas news review

The Green Schools Are Coming, The Good Schools...

넣으며 그것을 새로운 green roof (도시 학교들의 최근 요구사항)로 덮는 비용을 따냈다.

“이 학교는 이 일대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 학교의 증축 예산이 시의회에서 승인된 지난 6월 29일, 시의회장인 Maria Del Carmen Arroyo가 말했다. “이것은 남 브롱스의, 이 지역 학생들과 이 지역 환경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붕 녹화 증축 부분이 가장 가시적인 업그레이드이다. 이 학교는 하이브리드 가든의 공영 주택 단지 내 어려운 경사면에 위치하여서, 40 퍼센트 적게 물을 사용하면서 침식피해를 막기 위해 혁신적인 조경법과 구조법을 섞어 설계 하였다. 또한 다른 면면을 보면 저공해 재료사용과 책임 폐기물 관리, 고효율 설비 시스템과 75퍼센트 자연 채광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채택했다.

Fletcher Thompson's 건축사사무소의 뉴욕 지사 소장인 에드 로스는 이것은 단지 규정에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건축 당국의 친환경 규정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리고 계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설계에 반영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학교이고, 또한 이 지역에서도 중요한 학교이다 라고 말했다.

“이제 이 학교는 시작 되었고, 다음단계로 넘어 가야한다. 우리는 이 건물이 가능한 가장 환경을 해치지 않고 시공되는 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춰 그 속을 배워 나가야 한다.”라고 브롱스 자치구 부대표 아우렐리아 그린리 데일리 뉴스에서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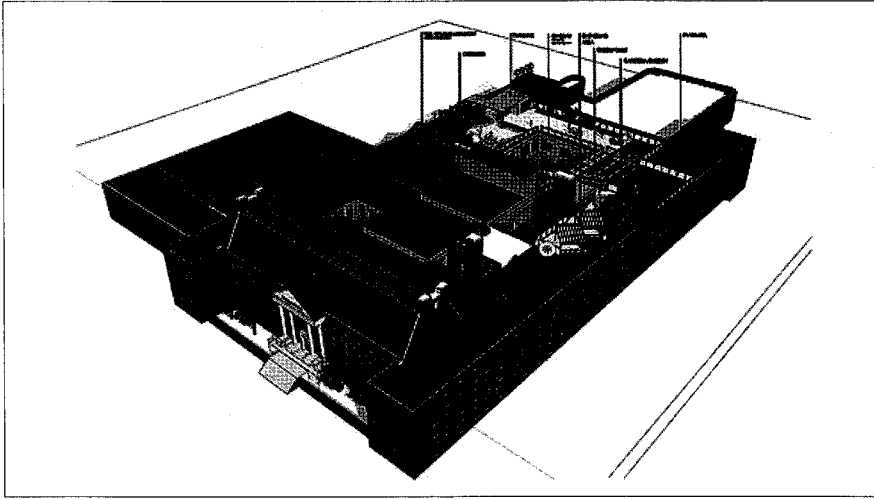
플레처 톰슨 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브롱스 학교 렌더링 이미지

고속도로에 둘러 쌓여 있으며, 국내에서 공영주택과 최악의 천식과 가난에 종종 인용되는, 뉴욕시 브롱스의 하이브리드 지역은 투쟁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의 Sustainable South Bronx와 Highbridge Community Center 같은 그룹들은 수년간 경제적인 이유로만 투쟁 해 온 것이 아니라 지역 환경의 평등을 목표로 싸워왔다. 그 결과로, 이 지역의 일부 가장 젊은 주민들은 Fletcher Thompson 건축사사무소에 의해 설계된, 뉴욕 주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지어진, LEED Platinum 등급으로 시공된 중학교에서 조금 더 깨끗하고 좀 더 친환경적인 숨을 쉬게 될 것 같다.

2005년 지역법 86 통과 이후에 지어진 다른 학교들과 같이, 이 400명 정원의 건물은 LEED 규정을 맞추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 구현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학부모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과거 이 지역에서 지원에서 등한 시 하던 것을 원했고, 시의회에 Platinum 등급에 포함 될 수 있는 범위에서 과학실 면적을 두 배로 늘리며 또한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김은미 / Studio M, Ap
by Kim, Eunmee



했다. 하이브리드의 학부모 연합회 책임자인 천시 영은 낙천적으로 이지역의 제한된 녹지 공간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활발히 사용될 친환경 공간을 만들어버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워싱턴 D.C. 맨하탄, 그리고 브롱스를 비롯해 우리주변에 친환경적인 학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보스톤 라틴 학교는 그저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공립학교'에 머물지 않고 지붕 녹화를하기로 결정했다. Studio G Architects 건축사사무소에 의해 설계된 이 학교는 사이즈로서는 이들 학교들 중 최고 면적인 5,000 평방피트를 농작물 재배와 카페테리아, 그리고 과학 실험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시설로 덮였다. 크기 면에서 보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넣고도 심지어 미니 골프장과 테니스장을 위한 공간이 남을 만큼 광대하다. 위의 렌더링 이미지에 보면 태양광 전지판과 풍력 발전 시설도 이 지붕 위에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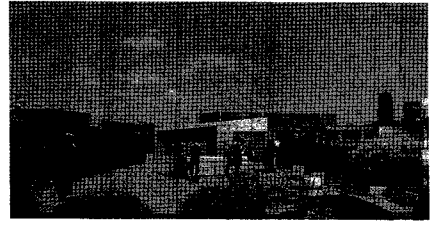
녹화된 지붕은 일부 실험 실습실로 사용되며 여기에 함유된 수분은 실내가 필요이상 더워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학교측 발표문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학교인 보스톤 라틴의 지붕녹화는 영화 '불편한 진실'을 보고 형성된 학생들의 모임인 '보스톤 라틴 스쿨 환경 활동 연대'에게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학교 측에 지붕 녹화화를 시행하도록 로비를 하고, 설계 전개 과정에 참

여 하며, 5백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위해 자금 모금에 앞장서는 노력을 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보스톤에 위치한 Studio G Architects 건축사사무소는 이러한 학생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명을 받아 기부를 설계용역으로 하기로 했다.

이 지붕위에 자리 잡은 많은 프로그램들은 보스톤 라틴 스쿨 학생들과 메사추세츠 주의 많은 학교에게 새롭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최첨단의 과학, 기술, 수학, 공학 연구실들은 설계의 근간이 되며, 학생들이 태양광 전지판이나 풍력 발전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와 같은 학교의 환경 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하고 관찰하고 있도록 해준다. 카페테리아 정원에서는, 온실과 과수원이 신선한 지역 농산물 재배를 시도하게 해주며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도모해준다. 명상정원은 언어, 예술, 음악 수업과 또한 휴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도시 학생들을 내재된 환경 도우미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수업효과를 차치 하고라도, 이 친환경 프로젝트는 보스톤 라틴 스쿨의 탄소배출을 녹화 조립된 미세기후 공간이 줄여 줄 것이며,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이 학교의 에너지 소비율을 낮추어 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새로운 지속가능함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에 영감을 주었고, 이 과정은 이번 가을 학기부터 보스톤 라틴 스쿨에 의해 주관 될 것이며, 이 프로그램들은 메사추세츠 주 내 다른 17개의 환경 활동 연대에서 수강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으로 이 혁명적인 프로그램 공간 영향이 이 보스톤 라



녹화된 지붕은 일부 실험 실습실로 사용되며 여기에 함유된 수분은 실내가 필요이상 더워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지붕 위 정원을 가꾸는 학생들

틴 스쿨을 넘어 연장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의 많은 학교들은 강당, 급식소 등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수용하기 위해 증개축을 해왔다. 물론 당국의 규율과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하겠지만 많은 경우 최저가 입찰로 최소한의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위의 학교들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워 졌던 학교의 지붕 공간은 불량학생들 전용 공간이거나 아니면... (확인 할 길은 없지만) 자살 방지용으로 항상 굳게 잠겨워진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살펴 본 미국의 경우를 보면 (그곳 역시 교육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하여 심지어 교사들마저 해임 시키고 있다) 전통의 공립학교나 빈민가의 학교가 친환경적 공간 창출로서 얼마나 많은 긍정적 발전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최근 우리의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집단 따돌리기와 학원 폭력,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황폐화된 인성... 이러한 폐해는 여러 번의 선거와 정책, 공약으로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 내 공간의 친환경적 변화로 내재된 인간의 바른 면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러한 폐해를 고치는 더 빠른 방법이 아닌가 하고 공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 본다. ■

덧글의 일부는 <http://blog.archpaper.com>에서 발췌 인용, 번역한 글입니다.